

## 孤山 尹善道の 삶과 文學 小考

오 선 주\*

### 〈국문초록〉

이 글은 강호자연과 정치현실을 반복적으로 넘나든 孤山 尹善道の 삶과 그의 문학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특히 강호와 조정의 두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인식양상을 보이며,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두어 살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문학관을 검토하였다.

먼저 정치적 시련의 시초가 된 상소문을 통해서 정치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직선적 성격과 이에 내재된 강한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고, 이를 출처관과 관련지어 논의하여 재설명하였다. 이에 두 면모는 각각 대결의식과 두 현실을 상황에 따라 넘나드는 모습으로 투영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윤선도가 주로 기거한 金鎖洞의 산수 경관을 술회한 〈金鎖洞記〉의 내용을 분석하여 자연관의 총체가 '會心'으로 집약됨을 밝혔다. 이 회심에는 강호 생활에 대한 만족과 그에 따른 윤리의식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작품에 투영되고 있다.

끝으로 단편적으로 문학에 대해 언급한 글을 살펴보고, 자연의 법칙과 윤리의식을 작품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 윤선도의 문학관이라고 규정하였다.

**핵심어** : 투영(投影), 성벽(性癖), 초심(初心), 출처관(出處觀), 회심(會心), 윤리규범(倫理規範)

\* 전북대

## 1. 序論

삶과 문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른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현실과 관련을 맺으면서 살아가므로 문학작품에도 그 현실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다만 현실을 드러내는 데 있어 작가의 개인적 지향이나 현실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히 '經世濟民'의 이상 실현을 목표로 한 조선조 사대부들의 경우,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로 나아가든 산림처사가 되든 이외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든 표면상으로 정치 일선과 거리를 두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지향적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사대부들의 정치현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으며, 또한 그만큼 정치적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한 것이든 간에 '歸去來'로 표방한 강호자연의 삶 역시 그들의 생활 영역에서 정치현실 못지않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孤山 尹善道(1587-1671)는 정치적으로 朋黨이 가속화되는 시기인 17세기 초·중기의 인물로서, 그의 생애는 끊임없는 붕당의 정치현실에 의한 세 차례의 유배, 강호 자연에의 은거 그리고 다시 정치현실로의 복귀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처럼 당대 정치적 파장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으면서도 괄목할 만한 문학적 성취를 이룩하여, 그의 문집 『孤山遺稿』에 한시 250여 편, 시조 75수 등을 남기고 있다. 그만큼 윤선도의 인생 행로와 문학 작품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선행 연구들이 윤선도의 정치적 생애와 작품의 현실주의적 성격간의 관련 양상 및 자연관에 주목해 왔다.<sup>1)</sup>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수용의 문

1) 윤선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趙東一의 「孤山研究의 회고와 전망」(『孤山研究』創刊號, 孤山研究會, 1987.)에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제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투영의 문제이다. 작품 속 현실의 형태나 종류를 파악하는 일이 역사·전기적인 쪽에 기운 관심이라고 한다면, 이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의식이나 가치관은 문학·예술적 형상화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윤선도의 정치적 시련과 그에 따른 현실 인식 및 그 처세를 짚어보고, 그의 의식이 처해진 환경에 따라 어떻게 문학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그의 문학관을 조명하고자 한다.

## 2. 出處의 反復的 삶

### 1) 政治 現實의 拒否와 現實志向

윤선도의 정치적 시련은 出仕하기 이전인, 그의 나이 30세(광해 8년, 1616)에 올린 상소문 〈丙辰疏〉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이 상소문에서, “威福의 권한을 농간한 李爾瞻의 죄와 다음으로 임금을 무시하고 나라를 저버린 柳希奮과 朴承宗의 죄”<sup>2)</sup>를 엄중히 다스릴 것을 목숨을 걸고 간언하였다. 즉 大北派들이 정권을 횡행하던 시기의 권신인 이이첨의 국정 농단과 그 폐해, 그리고 이를 보고도 묵인한 유희분과 박승종의 죄상을 강경하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북파에 의해 “임금을 무시하고 王法을 무시하고 역당을 옹호하고 조정을 모함한 죄”<sup>3)</sup>로 탄핵되어 함북 慶源과 경상도 機張으로 유배되었다. 윤선도는 이때의 심정을 아래와 같이 읊고 있다.

2) 爾瞻擅弄威福之罪 次治希奮承宗忘君負國之罪(〈丙辰疏〉, 『孤山遺稿』 卷2.)

3)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2집(1997), 광해 8년 12월 25일.

高冠長佩亦無求	높은 관에 긴 패옥도 구함이 없었으나
性癖於人苦不周	性癖은 남에게 심히 원만치 못 했네
今日投身玄塞外	오늘 북녘 변새 밖에 몸이 던져졌으니
休將國事作吾愁	나랏일로 내 근심 삼기를 쉬려 하네 <sup>4)</sup>

위의 시는 경원에 유배된 직후에 지은 작품이다. 화자는 변새 밖에 처해진 원인을 남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치 못한 자신의 '性癖', 곧 성격의 성향과 관련짓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起句는 부귀를 탐하지 않는 금욕의 내면 지향적 성격이다. 반면 承句는 結句의 '國事'와 연결하여 볼 때, 조정 관료와의 관계에서 표출되는 외적 성격이다. 결국 화자의 성격은 外物과 外勢에 전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이다. 그럼 화자의 '性癖'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는 당시 조정의 실상을 논한 <丙辰疏>의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쉽게 드러난다. 이 상소문에서 폐단을 일삼는 주도적 인물인 이이첨 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 방관한 윤희분과 박승종까지 비난하고 있다. 이는 도리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직선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곧 불의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직간하는 성품이 '性癖'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변새 밖으로 유배된 화자는 그곳에서 '國事'를 잊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정치현실에 대한 완전한 떠남과 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結句인 '休'의 의미에서 드러나듯이, 비록 변새인 강호자연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의 성격이 다시 외현될 수 있는 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윤선도의 두 가지 면모를 읽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한 걸음의 타협이나 양보를 허용하지 않는 직선적 성격이요, 다른 하나는 이에 내재된 강한 정치적 성향이다. 이는 수차례 출처를 반복한 그의 정치적

4) <登鎮胡樓 次楣上韻> 其三, 『孤山遺稿』 卷1.



나) 저의 시에서 “우리는 경제제민에 뜻 없는 것이 아니니/ 군자가 나아가고 물러남에 어찌 때 있으리오”라고 한 것은 대개 주자가 말한 “경제제민은 일찍부터 숭상한 바요/ 세상 피해 숨는 일은 본래의 기약이 아니다”라는 뜻을 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자신을 천거함과 관계된다고 의심한다니 아주 가소롭습니다. 진실로 나아가 취할 뜻이 있었다면 평생토록 어찌 스스로 七顛八倒의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가만히 생각건대 선비의 처세는 참으로 구차스레 나아가서는 아니 되고 또 구차스레 물러나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마땅히 이익을 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물러나면 마땅히 세상 잇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늙음에 이르도록 잊혀지지 않아서 그것이 탄식과 영탄으로 나타난 나머지 시로 이루어진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7)

위의 두 글은 정치적 시련과 그에 따른 처세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에서 ‘동서남북 어디에도 이미 갈 곳이 없는’ 것은 현실과 자신 사이의 부조화 상태를 나타낸다. 이것은 ‘조정에 있으면 번잡한 말이 있고, 외직에 보임하면 비방이 쌓이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이른바 仕宦의 한 결과이다. 윤선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로써, ‘河海’와 ‘山林’의 강호자연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선택은 ‘강호(산림)’와 ‘세속(조정)’적 삶을 이분법적 구도로 인식함과 동시에 강호에서의 삶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선도는 자신의 출처를 古人의 은거에 대한 높은 뜻에 比擬하기보다는 정치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初心’을 저버리지 않기 위함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출처가 ‘때를 만남과 못 만남’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

重獲罪於明時也(〈答人書〉, 『孤山遺稿』 卷4.)

7) 鄙詩吾人經濟非無志 君子行藏奈有時云者 蓋律朱夫子經濟夙所向 隱淪非素期之意也 而或疑涉於自薦 殊爲可笑 苟有進取之志 則平生豈自臻於七顛八倒也 竊以爲士之處世 固不可苟進 而亦不可苟退 進則當戒貪利 退則當戒忘世 此心至老耿耿 不覺其形於咨嗟之餘也(〈上白軒相公書〉, 『孤山遺稿』 卷4.)

신의 뜻에 의한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것은 나)에서도 확인된다. 출처에는 때가 없고, 은거는 본래의 기약이 아니라라는 언급이 그것이다. 특히 은거가 '본래의 기약'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의 초심이 강호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 그의 초심은 무엇인가? 이는 “진실로 나아가 취할 뜻이 있었다면 평생토록 어찌 스스로 칠전팔도의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라는 반문에서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七顛八倒’는 정치적 시련에 따른 출처의 반복적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반복은 ‘나아가 취할 뜻’이 없음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나아가 취할 뜻이 없음은 관직에 연연하지 않는 삶의 자세이다. 이 같은 자세는 “한 걸음 물러났다가 나아감은 예부터 능하다만/ 기름처럼 미끄럽고 가죽처럼 무른 일은 잘하지 못하네”<sup>8)</sup>라는 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관직 유지를 위해 아부 내지는 아첨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번잡한 말이나 비방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이 곧 윤선도의 초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性癖’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심으로 물러난 강호자연에서, 그는 정치현실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세상 잇음을 스스로 경계하고 있다. 예컨대 ‘苟進’과 ‘貪利’는 현실과 타협하여 벼슬에 나아가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영달과 권력욕에 힘쓰는 것으로, 이는 <丙辰疏>에서 지적한 당대의 부정적 현실정치이다. 따라서 ‘물러나면 마땅히 세상 잇음을 경계’함은 부정적 현실정치와 타협하지 않을 뿐이지, ‘경세제민의 뜻’을 펼칠 정치적 이념 그 자체와 그것에 대한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제 윤선도 이러한 면모가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투영되어 나

8) 退一步行久已能/ 不能脂滑而韋脆(<次韻酬李季夏>, 『孤山遺稿』卷1.)

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滄浪便作青溟闊	푸른 물결 문득 일어 푸른 바다인 양 드넓으니
莫辨長郊與大江	넓은 들과 큰 강을 분별할 수 없구나
底事茲山不埋沒	어찌하여 이 산은 매몰되지 않았는가?
千岡萬阜忽駢降	일천 구릉 일만 언덕이 순식간에 줄지어 항복했거늘 <sup>9)</sup>

상해런가 꿈이런가 白碧玉 옥경의 올라가니  
 玉 옥 황황은 반기시나 羣 군 仙 선이 꺼리느다  
 두어라 五 오 호 호 연 연 월 월이 내 分 분 일 시 올랐다<sup>10)</sup>

먼저 위의 한시에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孤山에 비유하고 있다. 즉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滄浪’의 횡포 앞에서 ‘長郊’와 ‘大江’, ‘千岡萬阜’는 줄줄이 굴복했지만 홀로 항복하지 않은 孤山, 그 굳건한 기상에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례로 “전에는 凶疏라 하고 지금은 邪說이라 하며/ 여론이 크게 일어 온 나라에 가득하네”<sup>11)</sup>와 같이, 상소를 올릴 때마다 흉소니 사설이니 하면서 조정의 여론을 조장하는 무리를 겨냥하여 강력한 대결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위의 시조에서 공간이나 대상에 대한 지칭이 ‘白碧玉 옥경’, ‘玉 옥 황황’, ‘羣 군 仙 선’ 등 천상계로 美稱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모두 당시 운선도가 효종의 부름을 받고 조정에 나아가 겪었던 일들을 압축하여 표출한 것이다. 먼저 초장의 ‘白碧玉 옥경의 올라가니’는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행위로써, 그 의도는 ‘玉 옥 황황’을 도와 함께 경세제민의 이상을 펼치는 데에 있다.<sup>12)</sup> 그러나 화자의 이러한 소망은 중장의 ‘羣 군 仙 선’에 의

9) 〈孤山獨不降〉, 『孤山遺稿』 卷1.

10) 〈夢몽 天천 謠요〉 一章, 『孤山遺稿』 卷6下.

11) 昔稱凶疏今邪說/ 輿論堂堂殷海東(〈題國是疏後〉, 『孤山遺稿』 卷1.)

12) 〈夢몽 天천 謠요〉 二章의 중장 “어즈버 百億萬만億억蒼蒼生生을 어너 결의 무르리”



해 좌절되자, 이에 ‘五湖호烟연月월’인 강호자연으로 물러나면서 이것이 곧 화자 자신의 ‘分’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내 分’은 단순히 강호자연에서의 삶을 만족하거나 그곳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즉 종장의 ‘羣仙선이 꺼리느냐’라는 행위는 웃으며 반기는 ‘玉皇황’의 태도와 대비되는 것으로, 곧 화자를 포함하는 시비와 비방의 완곡한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羣仙선’의 무리와 타협하기보다는 강호자연으로 물러나는 선택으로써의 ‘分’이다. 곧 처세적인 행위의 만족감이며, 이 행위를 ‘올타다’와 같이 떳떳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정치현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윤선도의 두 가지 면모 중, 직선적 성격은 대결의식으로, 현실지향은 경세제민이라는 정치적 포부를 가지고 정치현실과 강호자연을 상황에 따라 넘나드는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다.

## 2) ‘會心’을 통한 規範的 江湖 認識

앞서 살펴보았듯이, 윤선도는 강호와 세속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지만, 강호자연에 있을 때에도 그는 현실에 대한 관심과 지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환언하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浮沈을 거듭하던 윤선도의 삶에 있어서 강호자연은 은거의 공간뿐만 아니라 재출사를 위한 심신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윤선도가 인식한 강호자연은 과연 어떠한 세계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수수관계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면모는 다음의 글에 잘 드러난다.

---

의 표현을 통해서 그 의도가 경세제민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月出巖의 북에 작은 당을 지어 편히 쉬며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수양할 곳으로 삼아 會心이라 명명하였다. 회심이란 뜻은 무엇인가? 泉石과 遠境은 둘 다 온전히 얻기 어렵다는 것은 곧 天下古今의 말이다. 十臺의 遠景과 一亭의 泉石이 수백 보 사이에 둘러 있고 당이 그 가운데 자리하여 통합하여 그것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것이 회심이란 것이 아닌가? 높은 산 맨 꼭대기는 반드시 기운이 차갑고 바람이 매서워 정신이 왕성하고 몸이 강한 자가 아니면 감히 거처하지 못하는데 이곳은 온화하고 평안하여 병을 요양할 수 있으니, 이것이 회심이란 것이 아닌가? 옛적에 이르기를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은 이르기 어렵다고 하였고, 考亭[朱子]도 雲谷草堂에 한 해에 한 두 차례 외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이곳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일찍이 듣고 보지 못한 곳이지만 人境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나의 水晶山居까지는 5리에 불과하고 나의 문소동 산거까지는 일리에 불과하여 주먹하나 막혀있는 곳에 천년의 秘境이 어찌 나를 위해 열려서 나로 하여금 날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하고 주자처럼 도화나 때로 보면 그로써 자위하고자 하는 그리움이 있지 않게 하였으니, 이것이 회심이란 것이 아닌가? 북쪽 창을 한 번 열면 고향이 눈앞에 들어오고 친척들의 사는 모습이 바라보이는 가운데에 생생하니 비록 가사를 잊고 궁벽한 오지에서 절경에 침취되었으니 선영과 조상을 경모하는 마음 잊을 수 없으며, 잠시 발길을 옮겨 蹕顯臺에서 北辰을 쳐다보면 寅賓에서 일월을 바라보고 孤松에서 有懷·追遠을 돌이켜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당은 나로 하여금 표연히 遺世獨立하여 羽化登仙하는 뜻이 있게 하였고, 마침내 또한 나에게 父子君臣의 윤리를 벗어 나지 않게 하였으며, 진실로 나로 하여금 釣水耕山의 흥취와 彈琴鼓缶의 낙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나에게 前哲의 아름다운 자취와 先王의 遺風을 음영케 하였으니, 이것이 회심이란 것이 아닌가?<sup>13)</sup>

- 13) 欲構小堂于月出巖之北 以爲冥坐頤神之所 命以會心 其義何居 泉石遠景 難得兩全 此乃天下古今之言也 十臺之遠景 一亭之泉石 環列於數百步之間 而堂居其中 統而有之 此非會心者歟 高山絕頂 必氣寒而風烈 非神王骨強者不敢居 而此則溫然而暖 恬然而安 可以養病 此非會心者歟 古稱絕境難到 考亭之於雲谷 歲不過一再至 而此則人世耳目所未嘗聞見者 不遠於人境 去余水晶山居不能五里 去余閒簾山居不能一里 而一丸之塞 千載之秘 胡然爲我而開 能使我日致羸形 而不使 有考亭夫子圖畫時觀 欲以自慰之戀乎 此非會心者歟 一啓北牖 家山入眼 姻親煙火了了望中 雖斷家事絕景於窮奧 而不能忘松楸之感桑梓之敬 今移杖履則瞻北辰於蹕顯 望日月於寅賓 孤松思顧復於有懷追遠 然則此堂固能使我飄飄然有遺世獨立羽化登仙之意 而終亦使我不外於父子君臣之倫理 固能使我專釣水耕山之興彈琴鼓缶之樂 而終亦使我景仰前哲之芳躅 歌詠先王之遺風 此非會心者歟(〈金鎖洞記〉, 『孤山遺稿』卷5下.)

위의 글에서 윤선도는 海南 金鎖洞 月出巖 북쪽에 ‘會心堂’을 짓고, 그 ‘會心’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이것이 곧 그가 인식한 자연관의 총체라 할 수 있겠다. 위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十臺의 遠境과 一亭의 泉石 가운데 있다.
- ② 온화하고 평안하여 병을 요양할 수 있다.
- ③ 遺世獨立하여 羽化登仙하는 뜻이 있게 한다.
- ④ 父子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 ⑤ 前哲의 아름다운 자취와 先王의 遺風을 음영케 한다.

먼저 ①은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자연이다. 즉 회심당을 중심으로 천석과 원경이 겹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자연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임과 동시에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중심부이다. 그런데 이 공간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일찍이 듣고 보지 못한 곳이지만 人境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곳이 아니다. 다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속적 요소가 닿지 않는 ‘秘境’인 것이다.

②와 ③은 그러한 공간에서 느끼는 흥취, 곧 풍류로서의 자연이다. 온화하고 평온한 자연의 모습에 동화되어 정신이 여유롭고 거리낌이 없이 높고도 멀리 트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흥취는 신선계와 신선 같은 정신세계로 극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탕한 흥취는 자칫 放逸의 세계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윤선도는 ④와 ⑤의 경우처럼, 규범으로서의 자연을 추구한다. 특히 ⑤의 경우는 옛 성현의 삶의 방식에서 어긋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先王의 遺風’, 곧 임금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삶으로서의 자연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윤선도에게 있어서 강호자연은 단순한 경물이 아니라 그의 정신세계를 여는 계기로 작용함과 동시에, 規範的 理想의 具現態로 발

현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강호자연은 현실의 온갖 시비와 그로 인한 갈등을 풀어주는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세상 잊음을 경계토록 윤리의식을 고양시켜 주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윤선도의 강호 생활은 미화되고 이상화된 꿈의 세계로 빠져드는 감상적 탐닉이 아니라, 강호에서의 삶을 긍정하되 그 바탕에 규범적 윤리의식을 침전시킴으로써 현재 삶의 만족이 임금의 은혜에서 비롯된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호자연 의식은 실제 작품 속에서 아래와 같이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居夷樂豈余娛	궁벽한 곳의 유배 생활이 어찌 나의 즐거움이라만
戀國懷先每自虞	나라 사랑, 선조 생각에 매양 스스로 근심하네
莫怪踰山移住苦	산 넘어 옮겨가는 고달픈일랑 괴이히 여기지 마소
望京猶覺一重無	서울을 바라보매 오히려 막힘이 없음을 깨닫네 <sup>14)</sup>

江강山산이 도타흔돌 내 分분으로 누얼느냐  
 님군 恩은惠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므리 갑고자 好야도 好을 일이 업세라<sup>15)</sup>

위의 한시에서, 起·承句와 轉·結句에서 화자의 심리 변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먼저 起·承句에서 화자는 비록 궁벽한 곳의 처해진 신세이지만 충효에 대한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은 '豈余娛'와 같이 아직 편안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轉·結句에 이르러서는 보다 평온적이다. '踰山'의 모습은 곧 강호에서 심신수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점차 이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게 되고 이에 서울과 자신과의 심리적 거리가 좁혀짐으로써 현실과 강호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강호의 생활이 현실과 배타적으로 단절

14) <病中遺懷>, 『孤山遺稿』 卷1.

15) <山山中등新新曲곡> 漫興 六章, 『孤山遺稿』 卷6下.

된 모습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위의 시조에서 화자는 강호 생활의 만족이 임금의 은혜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장의 ‘더욱 아노이다’라는 표현은 만족감이 늘어갈수록 은혜가 더욱 깊음을 암시한다. 아울러 이러한 은혜는 종장에서와 같이 강호의 삶 속에서 군은에 보답할 길이 없음의 깨달음으로 인해 보다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강호 인식은 작품 속에서 강호 생활에 대한 만족과 그에 따른 윤리의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 3. ‘自然-規範’ 一如의 文學觀

앞의 두 절에서 소략하게나마 살펴본 것처럼 윤선도의 작품 세계는 원칙주의라 할 만큼의 직선적 성향과 윤리의식을 토대로, 강호와 세속의 구분 속에서 현실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러한 경향은 그의 문학관과 어떻게 연결 되는가? 아래의 글이 도움된다.

가) 시라는 것은 性情을 읊어 정신을 유통하는 것이니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떳떳함과 사물의 이치에 관계된 시는 읽으면 유티하고 행하면 유익하며, 人情과 物態를 능히 언표한 것들은 좋게 보아 많은 지식의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악한 것이 경계 삼기에 부족한 것과 선한 것이 모범으로 하기에 부족한 것들은 모두 程子가 말한 바의 한가한 말이니 진실로 볼 만한 것이 못됩니다.

앞드려 보건대, 이 책의 첫 절구(이 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니)에는 멋대로 놀아서 돌아옴을 잊은 뜻과 활기가 없고 정신이 쇠퇴한 기운이 있고, 다음 절구(해 속에 아침빛이 빛나네)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태도와 나아감이 간절하고 구차스레 구하는 욕심이 있으니 어찌 그것을 책을 여는 첫 머리에 두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잠시 이 책에 실린 것으로 논하면, “전쟁이

어느 날에 평정되어/ 노래하고 춤추며 장안에 들어가리”에는 남자의 기상이 있고, “춤추니 춘풍이 많고/ 가을이 오니 그리움을 견디기 어렵네”는 貞婦의 심사를 말하고, “여전히 後主를 하직하는 소리 들리는 듯/ 다시는 南陽으로 늙지 않으리라 하네”는 충신의 지극한 마음을 공교하게 묘사하였고, “河橋에서 송별하지 않으니/ 江樹에 멀리 정을 머금네”는 능히 봉우의 情體를 말하고, “멀리서도 알겠나니, 형제들 높은 곳에 올라/ 수유를 돌려 꽃다가 한사람이 모자를 짓을”은 동기의 정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작품들은 특별히 의미가 있어 가히 읊조릴 만 합니다.<sup>16)</sup>

나) 크게는 군신과 부자로부터 작게는 초목과 금수에 이르기까지, 가까이는 이목구비로부터 멀리는 산천과 바다에 이르기까지, 우주 사이에 가득한 만물 만사에는 각각에 따른 當然의 법칙과 至善의 궁극적 원리가 있지 않음이 없다. 배우는 자는 마땅히 천하의 모든 사물에 나아가 미루어 궁구하고 체득하여서 그 정미한 심층까지 살펴야 한다. 그리하여 그 법칙과 궁극적 원리에 나의 진정한 앎과 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면, 이것이 이른바 格物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하의 만물이 지닌 법칙과 원리가 낱낱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게 되니, 오랑캐가 눈 안에 있는 듯 강호가 눈에서 생기는 듯 하고, 선왕이 나타나 계시는 듯 요임금의 모습이 순임금의 국그릇과 담장에 어리는 듯하게 된다. 그리하여 스스로 그러리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sup>17)</sup>

가)는 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의 분별 기준에 대해서 서술하고

- 16) 詩者所以吟詠性情 流通精神 不可以不知者也 然其有關於民彝物則者 讀之有利行之益 其能言於人情物態者 覽之爲多識之資 而其惡之不足以爲戒 善之不足以爲法者 皆程子所謂閑言語 固無足觀也 伏見此卷首絕 此日長昏飲詩也 有流蕩忘返之意 委靡頹墮之氣 次絕 日裏朝彩詩也 有矜己術能之態 干進苟求之欲 豈合置之於開卷之始也 姑就此卷所載而論之 則戎衣何日定 歌舞入長安 有男子之氣象 爲舞春風多 秋來不堪著 道貞婦之心事 猶聞辭後主 不復臥南陽 巧寫忠臣之盡瘁 河橋不相送 江樹遠含情 能言朋友之情禮 遙知兄弟登高處 遍插茱萸少一人 同氣之情 …… 如此等作 殊有意味而乃可吟詠也(〈送一大君房掌務書〉, 『孤山遺稿』 卷3下)
- 17) 大而君臣父子 小而草木禽獸 近而耳目口鼻 遠而山岳河海 宇宙間林林叢叢萬物 萬事無不各有當然之準則 至善之極處 學者當卽凡天下之物 推究體認 審其精微之蘊 而於其準則極處 吾之眞知實見無所不到 則是所謂格物也 夫然則天下之物 準則極處 莫不森森呈露 如虜在目中 如江湖生目 如忠信之參於前倚於衡 如先王之著存 如堯之現於羹墻 自有不期然而然者(〈與鄭進士吉甫書〉, 『孤山遺稿』 卷4)

있다. 그 기준은 ‘백성들의 떳떳함과 사물의 이치에 관계된 것’과 ‘人情과 物態를 능히 언표한 것’으로 삼고 있다. 즉 윤리규범과 그에 관한 언표, 이른바 言志의 내용을 중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작품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시는 바람직한 男子象과 女人象, 忠臣, 봉우와 형제간의 人倫 등을 들고 있으며, 부정적인 시로는 인륜에서 벗어난 방탕한 생활과 정신 쇠퇴, 자신만을 앞세우는 교만과 구차하게 이익을 구하는 태도를 들고 있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가 윤리규범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나)는 이른바 格物論이다. 모든 만물과 만사에는 각각의 당연한 법칙과 원리가 있으므로, 외적인 객관물을 탐구해서 내적인 법칙과 원리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大學』에서 말한, “사물의 이치가 이른 뒤에 지식이 지극해지고, 지식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루어지고, 마음이 바루어진 뒤에 몸이 닦아지고, 몸이 닦아진 뒤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한 뒤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태평하게 되는”<sup>18)</sup> 차례를 설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修身齊家治國平天下’, 곧 경세제민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모든 이치가 담겨져 있는 자연 속에서 실제 체험하면서 물아일체가 되어야 비로소 그 뜻이 드러남을 의미한다.

결국 위의 두 글을 종합해 보면, 사물의 정미한 부분까지 탐구하여 그에 내재된 윤리 규범적 이치의 내용을 작품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 윤선도가 파악한 문학적 본질이라 할 수 있다.

魚鳥自相親    물고기와 새는 절로 서로 친하고  
江山顏色眞    강과 산은 얼굴빛이 참되도다

18) 物格而后知至 知至而后意誠 意誠而后心正 心正而后身修 身修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釋明明德〉, 『大學』)

人心如物意    사람 마음이 사물의 뜻과 같다면  
四海可同春    온 누리가 봄을 함께 누릴 수 있으련만<sup>19)</sup>

우는 거시 벉구기가 프른 거시 벉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지芻국應총 至지芻국應총 於어思스臥와  
말가흐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는다<sup>20)</sup>

위의 한시에서 화자는 사물에 존재하는 근원적 상태를 그려냄으로써 세계의 참모습을 밝혀내고 있다. 곧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풍경화를 그리는 듯한 시선에 머물지 않고 내면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먼저 起句의 경우, ‘물고기’와 ‘새’는 대립의 관계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sup>21)</sup> 그런데 화자는 이 둘의 관계를 대립이 아닌 친화의 관계로 그리고 있다. 사실 ‘물고기’와 ‘새’의 대립 관계는 ‘새’가 배고플 때 형성될 뿐이다. 이때 ‘새’의 공격은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위한 것이지 그 본성 자체가 악해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相親’은 서로 거리낌이 없이 자유로운 상태로써 악의가 없는 순수함을 뜻한다. 따라서 ‘물고기’와 ‘새’는 삶의 기본적 조건이 다를 뿐, 주어진 자연의 혜택을 자유로이 누리는 삶의 태도는 동일하다.

한편 화자는 承句에서 ‘물고기’와 ‘새’를 ‘강’과 ‘산’으로, ‘相親’을 ‘色眞’으로 그 의미범주를 확장시키고 있다. 각 객체의 순수함에서 강조자

19) <病還孤山 舡上感興> 其二, 『孤山遺稿』 卷1.

20) <漁어父부四스時시詞스> 春 四章, 『孤山遺稿』 卷6下.

21) 이것은 “날이 덥도다 물 우희 고기 떠다/ 단 드러라 단 드러라/ 굴머기 들식 세식 오락가락 흐느고야/ 至지芻국應총 至지芻국應총 於어思스臥와/ 낫대는 쥐여 잇다 濁탁酒유스瓶병 시릿느나”(『漁어父부四스時시詞스> 春 二章, 『孤山遺稿』 卷6下.)에서 ‘오락가락 흐느고야’의 표현을 통해 ‘고기’와 ‘굴머기’가 대립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연의 진실성이라는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사람의 마음 또한 이 법칙의 범주 속에 편입시켜, '物意'의 강호 자연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春'의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표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적 가치관이 아닌 온 인류의 세계관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위의 시조 또한 사물의 본질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즉 화자는 '벽구기'와 '버들숲'이 갖는 고유의 속성을 각각 '우는 것'과 '푸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은 바로 이 속성이 각자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주요 요소임을 시사한다. '우는 것'은 소리를 통해서, '푸른 것'은 색깔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이는 곧 생명력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漁어村촌 두어 집'은 無情, 無動의 인위적인 사물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 인공물이 '넋 속'을 '나락들락'하는 동적인 존재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지향점인 '넋 속'은 다름 아닌 '온간 고기 뛰노'는 생명의 원천이다. 이에 '漁어村촌 두어 집'이 '넋 속'을 지향함은 '벽구기'와 '버들숲'과 같이 생명력을 갖기 위함이다. '나락들락'의 반복적인 행위가 이를 보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벽구기'와 '버들숲', '온간 고기'가 지니는 생명력은 '漁어村촌 두어 집'으로 전이된다. 이로써 '漁어村촌 두어 집'은 인공물의 의미를 넘어서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강호자연의 생명체라는 보편적 의미로 확장된다. 따라서 이 곳에 사는 화자 자신 또한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 주체적 삶은 강호자연과 합일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윤선도는 사물의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여 그에 내재된 자연적 법칙성을 도출시키고, 이를 인륜적 규범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즉 사물을 통해 세계의 진실한 모습과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입장에 문학의 의의를 두었다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연

의 이치와 규범적 가치가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이른바 ‘自然—規範’一如의 구현이 윤선도의 문학관이라 하겠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자연과 조정 두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작품에 투영되는 양상과 맥을 같이 한다.

#### 4. 結論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이 글은 강호와 조정 두 현실을 반복적으로 넘나든 삶 속에서 두 현실에 대해 어떤 인식 양상을 보이며,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두어 살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문학관을 검토하였다.

먼저 상소문을 계기로 시작된 출처의 반복적 삶에서 윤선도는 한 걸음 타협이나 양보를 허용하지 않는 직선적 성격과 이에 내재된 강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 이 두 면모는 작품에 각각 직선적 성격은 대결 의식으로, 강한 정치적 성향은 현실정치와 강호자연을 상황에 따라 넘나드는 모습으로 투영되었다. 그리고 현실과의 비타협으로 선택한 강호, 특히 金鎖洞에서의 생활은 강호 자연의 만족감과 그에 상응하는 윤리의식으로 표출되었다.

결국 이러한 성향들은 사물의 정밀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내재된 자연적 법칙성을 인륜적 규범으로 전이시킨 문학관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윤선도의 작품은 자연과 윤리규범의一如의 문학관에서 비롯된 하나의 문학양식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孤山遺稿』

고미숙, 「격변기에 산출된 강호미학의 정점-고산 윤선도」,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 1998.

金興圭, 『욕망과 형식의 詩學』, 태학사, 1999.

文永午, 『孤山文學論評』, 태학사, 2001.

박중우, 「孤山 尹善道 漢詩의 一考察」, 『어문논집』 제45집, 민족어문학회, 2002.

元容文, 「尹善道の 文學觀과 音樂觀」, 『時調學論叢』 第8輯, 韓國時調學會, 1989.

\_\_\_\_\_, 『孤山 尹善道の 詩歌 研究』, 국학자료원, 1996.

趙東一, 「孤山研究의 회고와 전망」, 『孤山研究』 創刊號, 孤山研究會, 1987.

崔珍源, 「山中新曲과 金鎖洞記의 관계」, 『孤山研究』 第3號, 孤山研究會, 1989.

〈Abstract〉

A study of the literature and life of Gosan

Yun Sun-do(孤山 尹善道)

Oh Sun-Ju

This study is about literature of Gosan Yun Sun-do(孤山 尹善道) and his life that haunted Gang-ho(江湖) natures and political realities repeatedly. Especially, it considers what aspect of cognition he had about two realities, Gang-ho(江湖) and the Imperial Court(朝廷) and how it throws image on his works. And through these, it is examined what his viewpoint of literature is.

First of all, through a memorial to the Throne that put him in first political trial, we can know that he was so strict that he didn't compromise with political realities and at the same time, he has a strong political

inclination hidden behind his character. These two aspects are reflected on his works as his confrontation will and his agony between the two realities two realities. And through analysing the contents of 〈金鎖洞記〉 that recollect landscapes of 金鎖洞 where Yun Sun-do mostly stayed, it can be found that his total viewpoints of nature is complacency. This complacency including the satisfaction of Gang-ho life and his ethics is intactly reflected on his works.

Finally, it is clearly revealed that he tried to embody the principle of nature and ethics in his literary works and his reference to the literary as well.

*Keywords* : reflection, inclination, one's first intention, complacency, ethics

논문투고일 : 2005년 5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2005년 7월 7일